제8강 인식의 과정

◆직관에서의 각지라는 종합과 구상에서의 재생이란 종합
(1교시)
※학습목표: 칸트의 인식론에서 각지와 재생의 의미를 살핀다.

▲각지의 역할
「어느 직관이거나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심성(마음)이 인상의 순차적 계기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은 다양이라고 표상될 수 없겠다. 표상은 한 순간에 포함된 것이기에 표상은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절대적인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직관이거나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심성(마음)이 인상의 순차적 계기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은 다양이라고 표상될 수 없겠다. 표상은 한 순간에 포함된 것이기에 표상은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절대적인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채우는 인상들을 순차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표상만을 갖는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계속 변화를 겪되, 그 양태들을 한 순간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것과 이어서(종합해서) 보아야지만 다양이 다양으로 파악된다.
-어제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표상하면서 어제라는 하나 속에 통일한다.

▲각지의 위치
「각지의 이러한 종합은 선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험에서 오지 않은 표상에 관해서 행해져야 한다. 각지의 종합이 없으면, 우리는 공간의 선천적 표상도 시간의 선천적 표상도 가지지 않기에 말이다. 감성의 근원적인 수용성이 제공 〔표상〕 하는 바 다양의 종합만이 표상들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각지의 순수한 종합 〔결합〕 을 가진다. 」
-경험에서 오는 표상이란 직접적 경험이다. 그러나 칸트가 다루는 것은 그 직접적 경험들 모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의 종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종합(각지)이 애초에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이 성립하는 것이다.

▲재생의 의미
「가끔 계기하거나 수반했던 표상들은 드디어 서로 연상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연결된다. 뿐더러 이때에는 대상이 현존하지 않아도, 이러한 표상들 중의 하나가 심성으로 하여금 항구적인 규칙에 따라서 다른 표상을 연상하도록 하거니와, 이렇도록 하는 법칙은 물론 순 경험적인 〔경험에서 귀납된〕 법칙이다.」

▲재생의 전제 1
「그러나, 이 재생의 법칙은 전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즉 현상들 자신이 사실상 이러한 규칙에 따라 있다는 것이요, 현상으로서의 표상의 다양에 있어서 합규칙적인 수반 혹은 계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적인 구상력은 「자신의 능력에 합치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죽은 능력·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능력으로서 심성의 내부에 묻어져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www.artnstudy.com

-현상들 그 자체가 현상들끼리의 연결고리를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어서 보는 것이다.

▲재생의 전제 2

「만일 주사(朱砂)가 혹은 붉어지고 혹은 검어지며, 혹은 가벼워지고 혹은 무거워진다고 한다면, 또 인간이 이 동물의 형태로 혹은 저 동물의 형태로 변해진다고 한다면, 또 여름의 기나긴 날에 땅이 과실로써 혹은 눈과 얼음으로써 덮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경험적인 구상력은, 붉은 색의 표상을 보고도 무거운 주사를 상상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혹은 하나의 이름이 이 사물에 혹은 저 사물에 부여되며, 혹은 동일한 사물에 여러가지 이름이 부여되고 말 것이다. 만약 이 점에 관해서, 현상들 자신이 이미 따르고 있는 일정한 규칙의 지배가 없다고 하면, 재생 〔재생 가능성〕의 경험적인 종합은 성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종합을 하는 주체는 우리(의 인식 틀)다. 그러나 인식의 틀이 있더라도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합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자체(경험자체)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상의 조건

「그러므로 현상들의 이러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어떤 것은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의 선천적인 근거이기에 말이다. 또 현상은 「물자체 그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표상들의 활동일 뿐이다.」

-종합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 주체성을 작동시켜 종합한다. 그러나 그 종합은 경험의 표상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사변이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인간이 근거하는 경험이 물자체는 아니다.

▲구상력(기억)의 작동

「표상들은 요컨대 내감의 규정에 귀착하는 것임을 반성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 「어떤 것」에 생각이 가는 바이다.」

「다양한 표상들의 하나하나를 순차로 생각 중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행하는 표상을 잊어버리고, 다음의 표상에로 전진해감에 따라 선행표상을 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완전한 전체 표상을 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구상력이 작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즉 기억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현대적 맥락에서 기억의 작동 : 우리 의식 속에 연달아 일어나는 표상들, 그리고 그 표상들의 종합은 의식 자체의 구조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즉 칸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순조롭고 조화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억의 작동이란 상당한 복잡성을 지녔다(베르그송). 또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프로이트).

◆개념에서의 재인이라는 종합

www.artnstudy.com

(2교시)
※학습목표: 칸트의 인식론에서 재인의 의미를 살피고 인식론 전체의 맥락을 본다.

▲재인의 의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순간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들의 계열에 있어서 모든 재생은 불가능하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표상이겠고, 이 새 표상은 표상들이 순차로 산출되게 할 작용에는 전혀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상들의 다양은 언제나「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지는 않겠다.」
-표상들의 다양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해야만 확고한 인식이 되고 통일성이 부여된다.

▲재인의 위치
「왜냐하면, 저 〔동일성의〕 의식만이 표상의 다양에 줄 수 있는 「통일」이 표상의 다양에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를 헤아릴 즈음에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단위들을 내가 순차로 보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단위들을 하나씩 계기적으로 보탬에 의해서 양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나는 수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수의 개념은 전혀 종합의 이러한 통일 의식 중에 존립한다.」
-표상 그 자체의 다양에는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성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서만 등장한다.

▲개념과 표상의 관계
「개념이란 말 자신이 앞서 말한 우리의 견해를 암시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야말로, 다양한 것·순차로 직관된 것·또 재생된 것을 하나의 표상에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의식은 이따금 미약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의식작용의〕 결과에 있어서만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되, 의식작용 자신에 있어서는 즉 직접적으로는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이런 종합하는 의식은 경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에 있어서만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되 직접적으로는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지 않는다.

▲통각(자기의식)
「그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불명석하더라도, 어제나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없고서는, 개념은 불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대상의 인식도 전혀 불가능하다. (중략) 인식이 하나의 대상에 관계해야 함에 의해서, 이식은「대상과 관계에 있어서」반드시 대상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의 개념을 형성하는 통일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합작용(구성작용)은 바로 그렇게 잡다한 표상들을 자기 안에 끌어올 수 있는 자기의식(cogito)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통각이다.

▲표상과 실재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의 다양만을 다룬다. 표상들에 대응하는 저 X(대상)는 우리의 표상들과는 다른 것일 터이기에, 그런 대상은 우리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있다고 말할 때, 엄밀히 말한 그 자제가 이미 통일작용을 보인 것이다. 하나

www.artnstudy.com

를 딱 끊어서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대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표상들을 종합한 결과만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표상을 종합하니 대상이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가? 플라톤의 경우 표상들은 우리의 감각작용으로 그치지만, 순수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우리가 표상들을 종합할 뿐이고, 이를 인식(종합)하는 방식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 한다.

*참고사항
-현대적 상대주의는 표상들을 바라보는 틀이 여러 가지고 이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칸트에게는 하나의 틀만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진 것이 표상밖에 없다. 그래서 칸트와 현대 상대주의와의 차이는 한발정도일 뿐이다.

▲의식의 형식적 통일
「이 때문에, 대상이 필연적이 되도록 하는 바 통일은, 표상들의 다양을 종합할 무렵의 의식의 형식적 통일 이외의 딴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상이 필연적이 되도록 하는 바 통일은 정말 그 대상이 가진 본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본질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종합할 무렵 형식적 통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규칙성
「우리가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통일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양을 선천적으로 반드시 재생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의해서, 또 다양을 결합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에 의해서 직관이 산출될 수 없더라면, 종합적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우리는 세 직선의 결합을, 규칙(이 규칙에 의해서 삼각형의 직관이 항상 제시될 수 있거니와)에 따라서 의식함에 의해서, 삼각형을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규칙의 통일이 모든 다양을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다양을 통각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로 제한한다. 이 통일의 개념은, X인 대상의 표상이다. 이런 대상을 나는 삼각형에 관한 상술한 객어들을 통해서 생각한다.」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은 우리 오성(통각)의 구성작용 규칙성이다.

www.artnstudy.com